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1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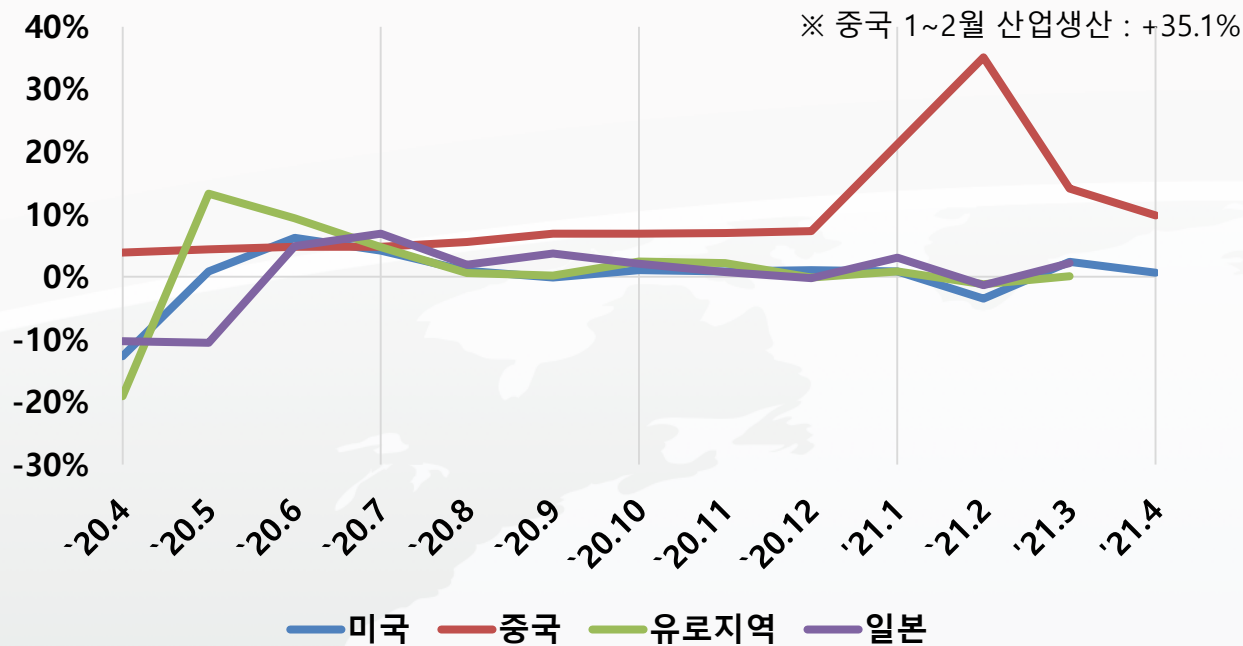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코로나19 불확실성 속 백신 보급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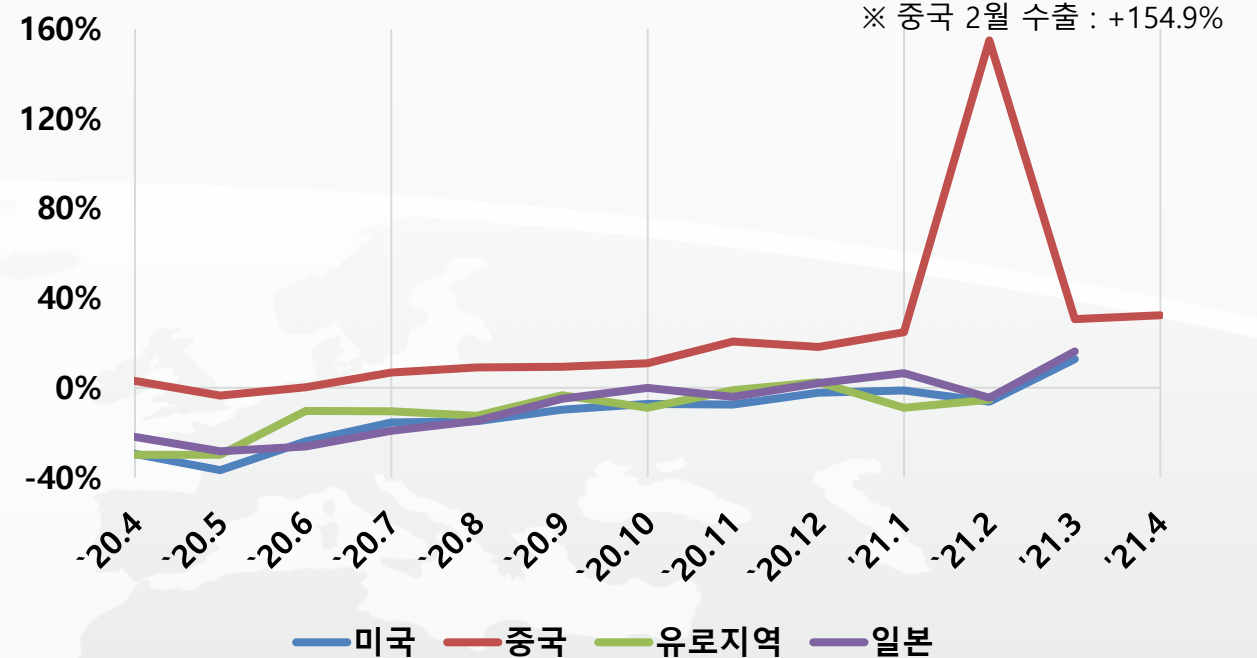
- **(미 국) 코로나19 지원금 등에도 불구하고, 개선세 다소 둔화**
- 4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7%)은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, 4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+0.0%)도 전월(+9.8%)의 기저효과 등으로 예상치 하회
- **(중 국)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생산 및 수출 호조 지속**
- 4월 산업생산(전년동월 대비, +9.8%) 및 4월 수출(전년동월 대비 +32.3%)은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 지속
- **(유로존) 백신 접종속도 증가 등으로 심리지표 개선**
- 3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0.1%)은 플러스 전환, 4월 제조업PMI(62.9)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서비스업PMI(50.5)는 8개월 만에 기준치 상회
- **(일 본) 생산·내수는 소폭 개선되었으나, 코로나19 4차 유행 및 백신접종 지연 등으로 불안한 경기회복세**
- 3월 산업생산(전월 대비 +2.2%)은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나며 증가 전환, 3월 소매판매(전월 대비 +1.2%)도 2개월 연속 증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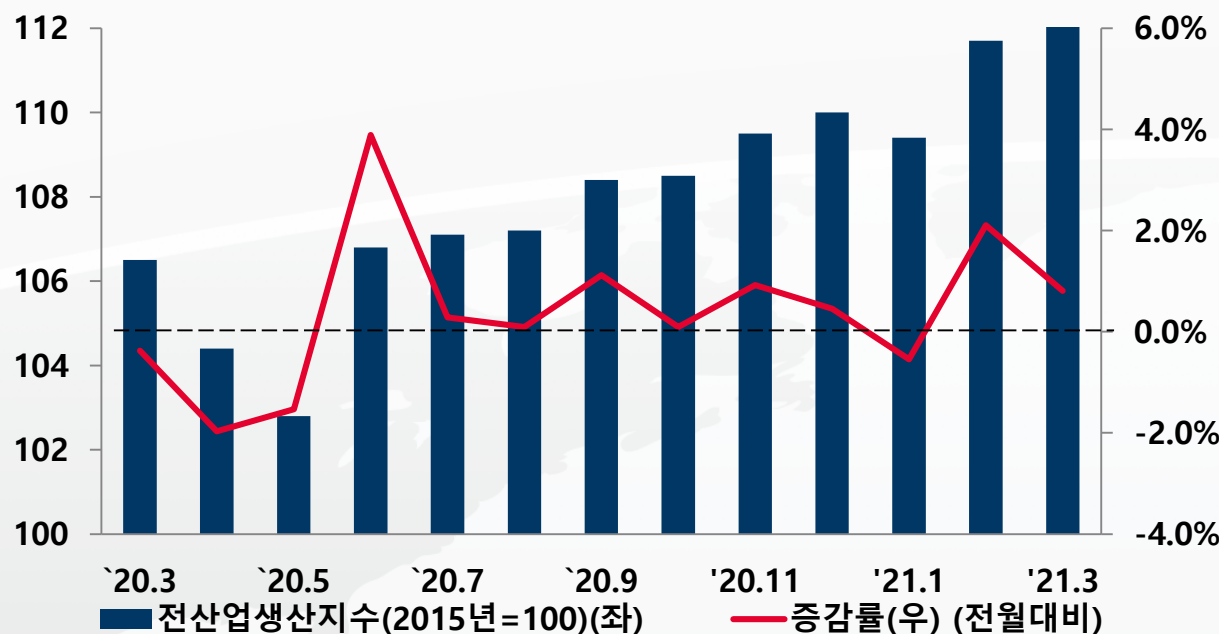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회복세

- (생산) 3월 전산업생산(+0.8%, 전월 대비)은 광공업 부진에도 불구하고, 대면 서비스업 증가 등으로 2개월 연속 증가
 - (광공업 : $\Delta 0.8\%$) : 기저효과 등으로 광업($\Delta 3.7\%$), 제조업($\Delta 0.8\%$) 및 전기·가스업($\Delta 0.6\%$)이 모두 감소하며 마이너스 전환
 - (서비스업 : +1.2%) : 금융·보험업($\Delta 3.1\%$)이 감소하였으나, 숙박·음식(+8.1%), 예술·스포츠·여가(+7.6%) 등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
- (경기) 3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0.2p) 기준치 상회,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103.1p) 10개월 연속 상승 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4월 수출은 전년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 상승 (전년동월 대비 +41.1%)

- 4월 총수출은 반도체·자동차·석유화학 등 호조로 511.9억 달러를 기록하며, 2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
 - 아세안(+45.5%) · 美(+43.0%) · EU(+43.0%) · 中(+31.7%) 등 9대 주요 수출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
 - 전방산업 수요 회복 및 유가회복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(+73.4%), 석유화학(+82.6%) 수출 호조

전산업생산지수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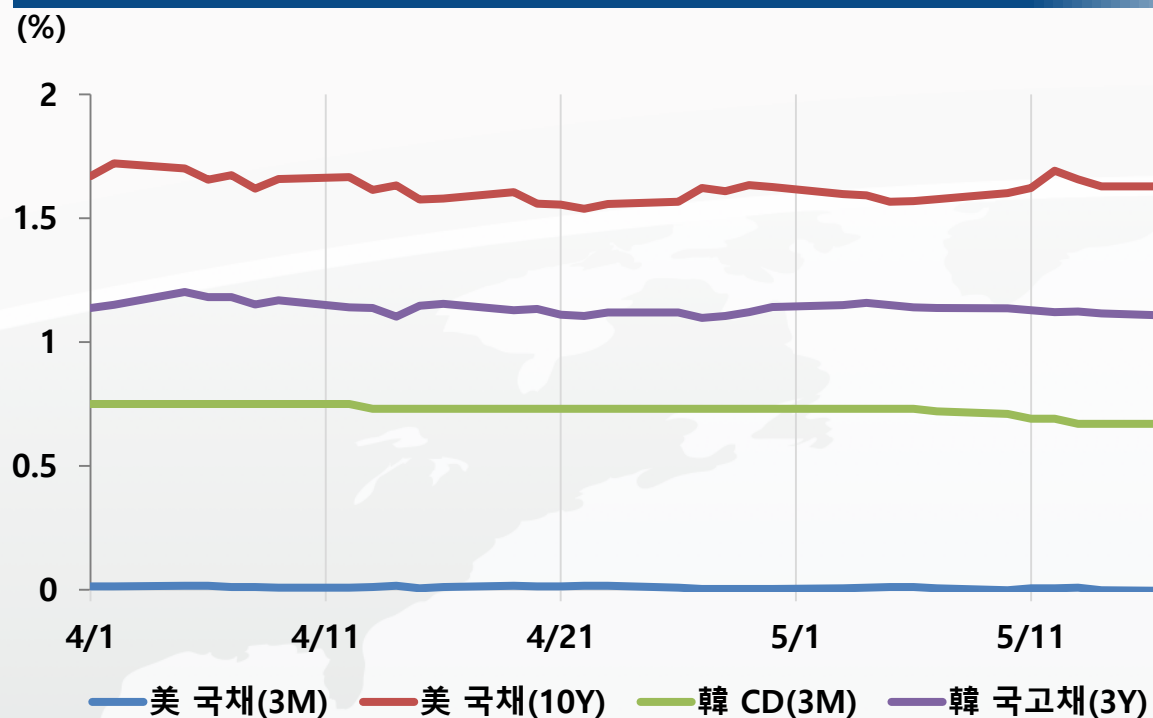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동향 : 인플레이 우려 속 변동폭 다소 축소

- (미국) 10년물 금리는 美 CPI 13년 만의 최고치 발표 이후 한때 급등하였으나, 국채 매수세 지속 등으로 안정세
 -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(%) : (4.1) 1.67 → (4.9) 1.66 → (4.19) 1.60 → (4.30) 1.63 → (5.7) → 1.58 → (5.12) 1.69 → (5.17) 1.63
- (한국) 한은 기준금리 동결 등 단기금리는 안정된 반면,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
 - 국고채 3년물 및 10년물 간 금리 차가 연초 0.77%p에서 5월 17일 1.01%p까지 확대되는 등, 최근 경기회복 전망이 금리에 반영

■ 환율 동향 :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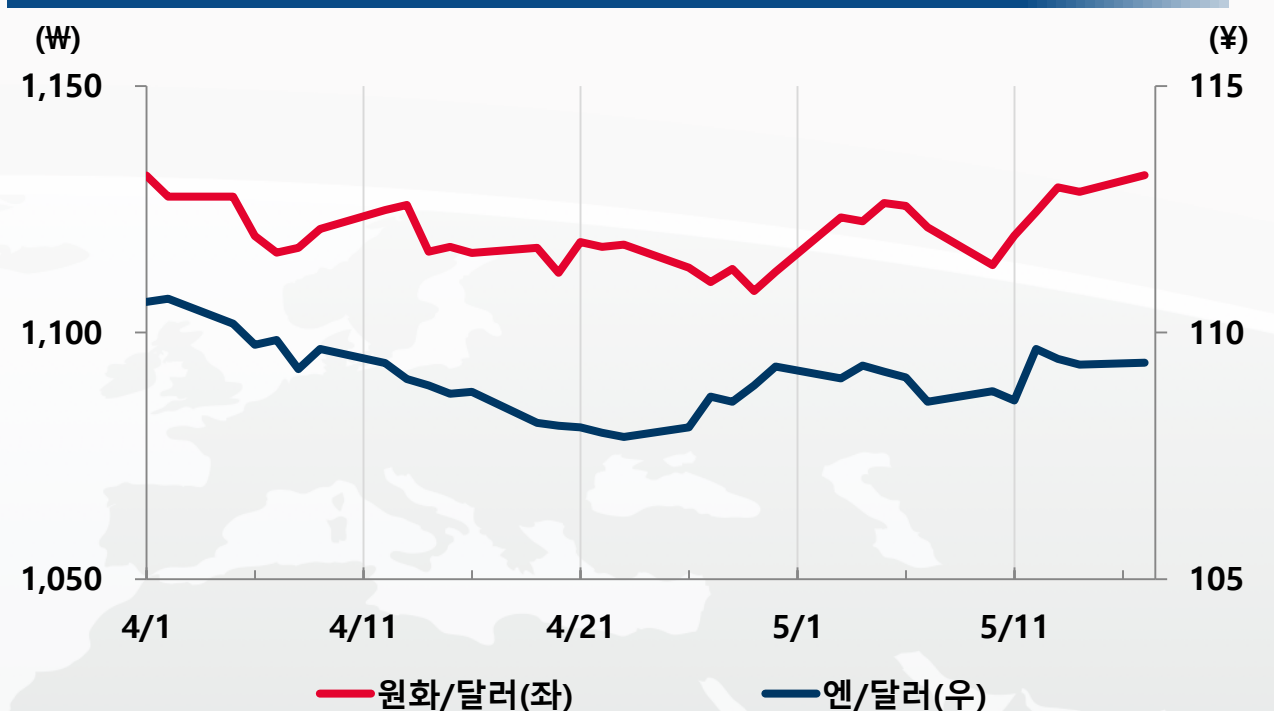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, 5월 외국인 국내주식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원화 약세
- (엔/달러 환율) 미·일 금리차 축소 등으로 엔화 강세가 이어진 이후, 부진한 1분기 GDP 발표 등으로 약보합 전환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금융투자협회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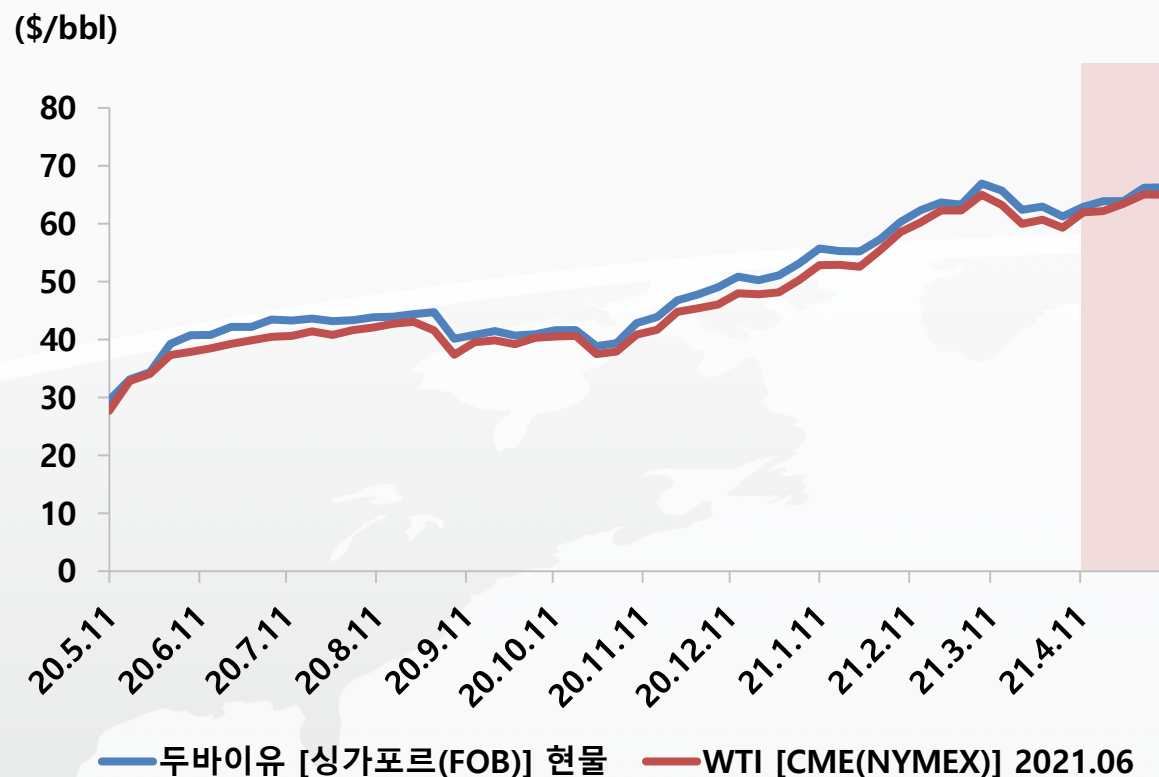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

■ 5월 중순 공급차질 등으로 유가 상승, 천연가스는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

- (유가) 4월 말 배럴당 60달러 초반대로 하락했으나 이후 공급차질 등으로 상승, 5월 중순 60달러 후반대 기록
 - 코로나21 재확산 우려,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 4월 말 유가가 하락했으나 미국 최대의 송유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중단 사태, IEA의 하반기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2개월래 최고치 기록(5.12일, 두바이유 66.56 \$/bbl)
- (천연가스 가격)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5월 중순 mmBtu당 3달러 선에 근접 (5.13일, 2.97 \$/mmBtu)
 - 4월말 미국 천연가스의 재고 증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,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5월 들어 mmBtu당 2.9달러대 지속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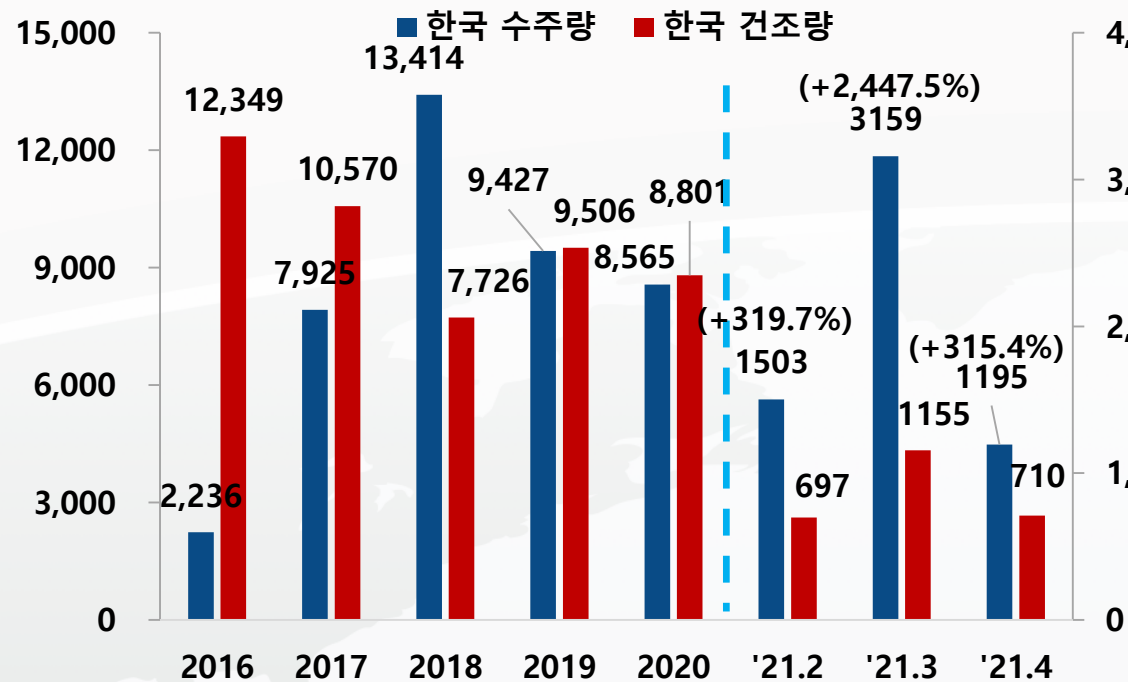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4월 수주는 에너지 관련 선종 약진 등으로 양호한 수준 지속

- 4월 시황은 세계 발주량, 한국 수주량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의 개선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**
 - 4월 세계발주량은 전년동월 대비 88.0% 증가한 305만CGT, 4월 누적치는 전년동기 대비 171.6% 증가한 1,543만CGT
 - 4월 한국은 119만CGT(전년동월 대비 315.4%)를 수주, 4월 누적치는 682만CGT (전년동기 대비 713.8%)
 - 4월 수주액은 30.5억달러 (전년동월 대비 434.0%), 누적 수주액은 156.4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695.3%)
 - 4월에는 LPG선 수주량이 약 35%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, LNG선, 탱커 수주 및 금년 첫 해양플랜트인 중소형 FPSO 수주 등 에너지 관련 선종이 주를 이룸
- 선박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**
 - 4월 수출액은 12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14.3%), 누적 수출액은 85.6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26.3%)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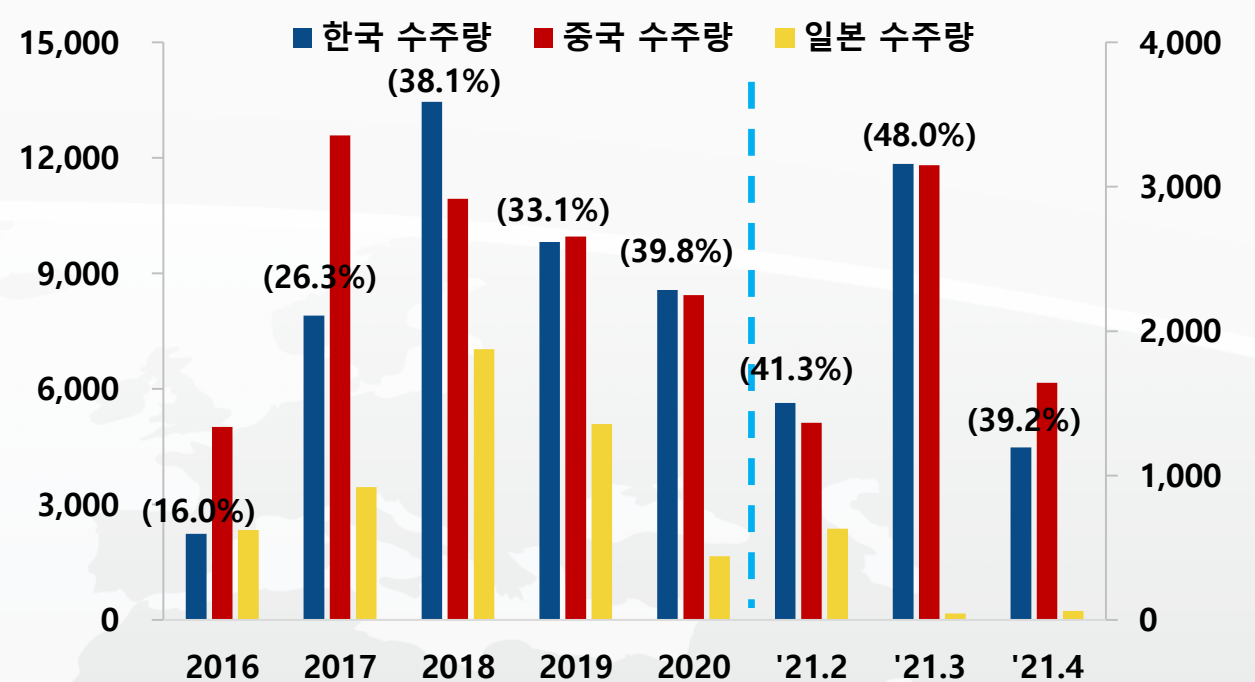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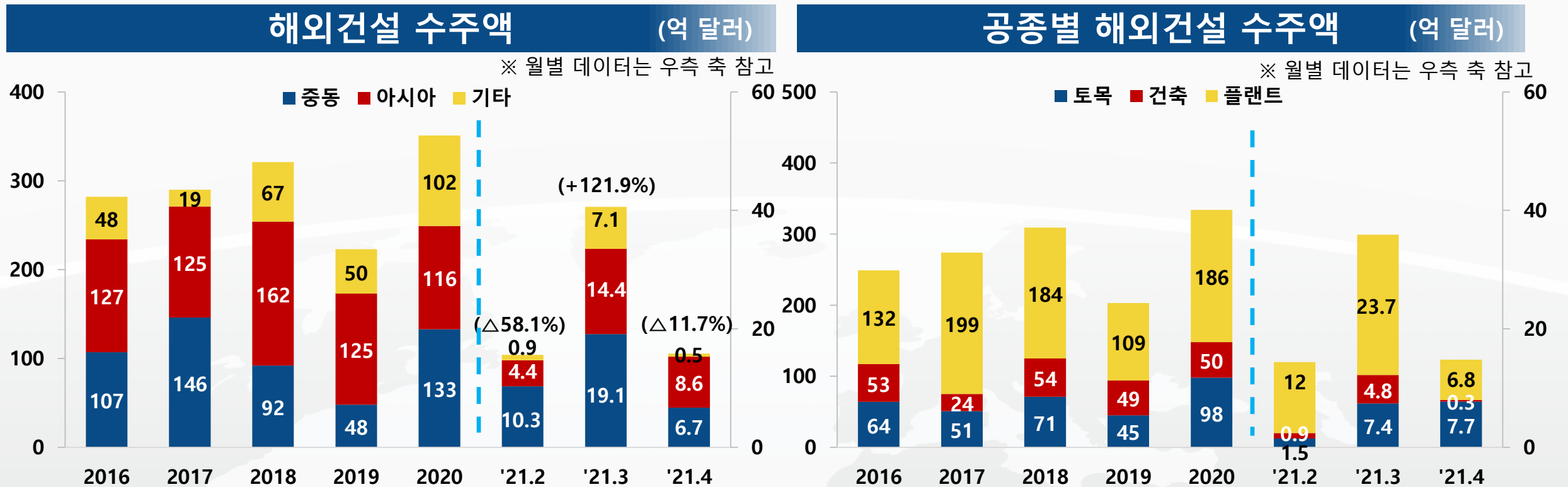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■ 4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11.7% 감소한 15.8억 달러

- 지역별 수주액은 중동 6.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.3배 증가, 아시아 8.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1.7% 감소
 - 지난해 부진했던 4월 중동수주는 6.5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AGIC 탈수소/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 수주를 함에 따라 큰 폭으로 반등,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 수주는 상대적으로 부진
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6.8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21.4%), 토목 7.7억 달러(+51%), 건축 0.3억 달러(△94.5%) 기록
-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플랜트 발주여건 개선 및 2분기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* 예상 등으로 2분기 이후 수주액 증가 기대

* UAE 해일&가사, 이라크 바그다드 트레인, 사우디 APC PDH&P, 호주 노스이스트링크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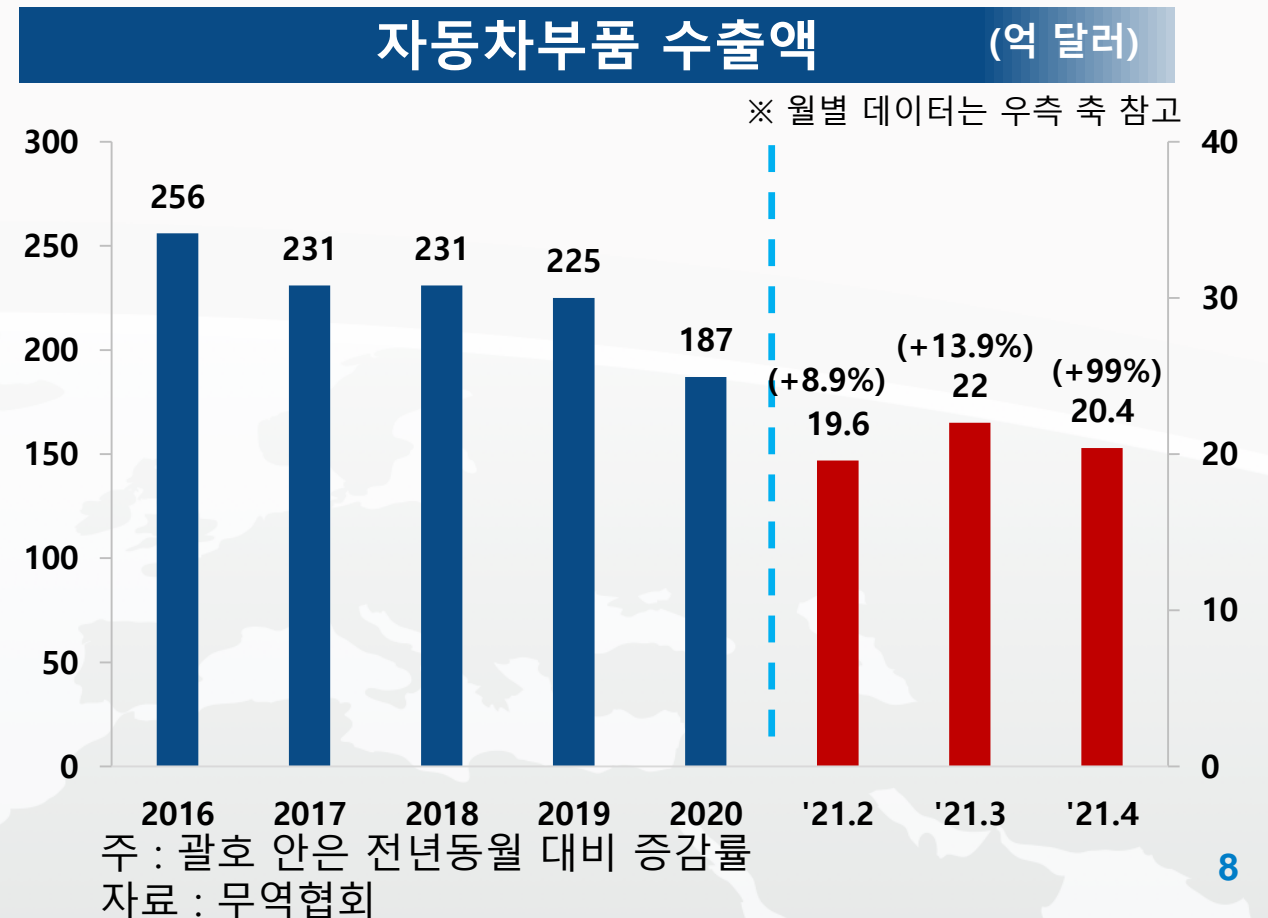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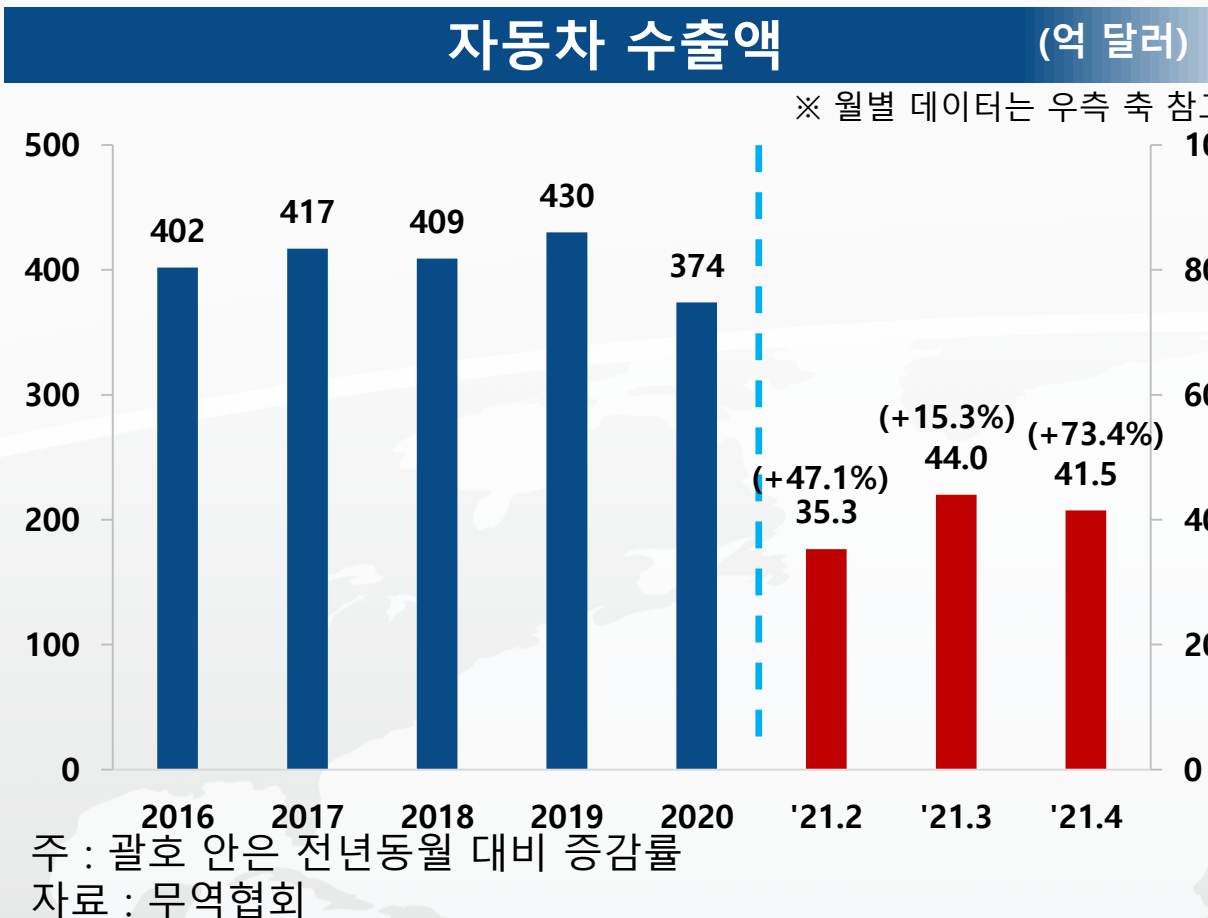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 자료 : 해외건설협회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4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41.5억 달러, 20.4억 달러 기록

-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73.4% 증가했으며, 전기자동차 수출은 5.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.7% 증가**
 -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, SUV와 친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로 수출 단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미국 및 유럽 지역 수출 성장세 지속으로 4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
 - * 친환경차 수출단가(\$): ('20.2) 23,032 → ('21.2) 27,657(+20.1%), SUV 수출단가(\$): ('20.2) 18,617 → ('21.2) 20,590(+10.6%)
-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99% 증가한 20.4억 달러 기록, 전월에 이어 증가 추세 지속**
 - 소비심리개선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SUV 수출 전략 차종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 중

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4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29.4%, 35.1% 증가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9.4% 증가한 94.0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데이터센터 기업의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구매 확대, D램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8.8% 증가한 59.3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달러) : ('20.1)2.84→(2)2.88→(3)2.94→(4)3.29→(5~6)3.31→(7~9)3.13 →(10~12)2.85 →('21.1~2)3.0 →(4)3.8 (D램익스체인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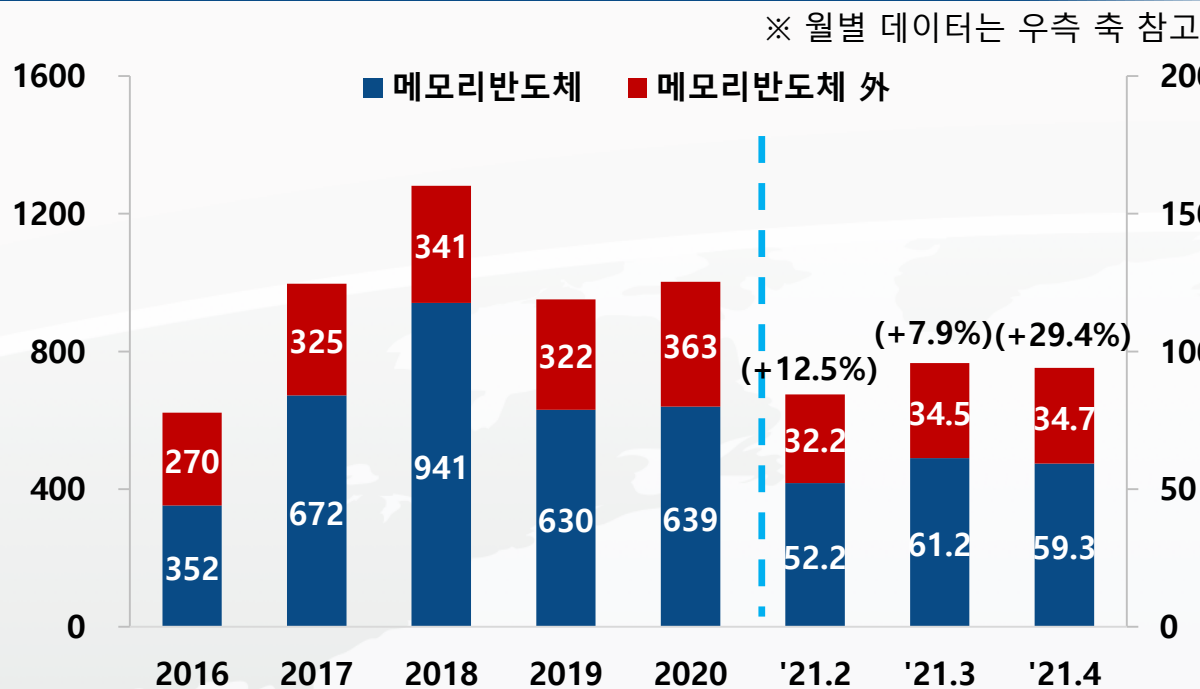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요 증가*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9.0% 증가한 29.4억 달러 기록

* 국내기업은 퀄컴의 AP(Application Processor), 엔비디아의 GPU(Graphic Processing Unit) 등을 수주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5.1% 증가한 16.7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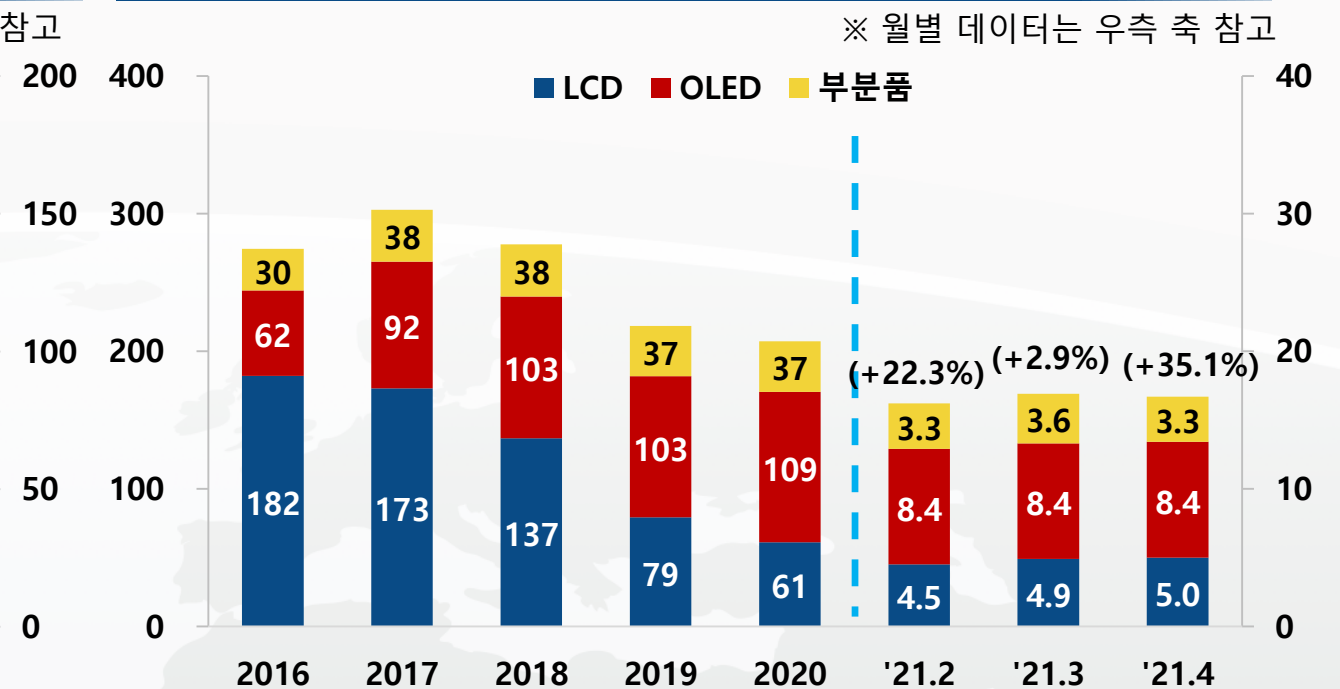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모바일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.5% 증가한 8.4억 달러 기록
- LCD 수출은 LCD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3.1% 증가한 5.0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